

〈口碑文學概說〉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 共著

菊版 310 pp. 定價 1,500 원 1971. 一潮閣

口碑傳承은 時空을 초월해서 말(言語)처럼 인간이 사는 곳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意識的인 관심이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8·19세기 이후 그 관심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거니와 대개 <民間의 이야기>에 집중되는데 비하여 20세기에 와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세기 초엽 日帝에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에 대한 自己反省 및 民族意識의 成長에 관련되어 口碑傳承이 수집 정리되었다. 日帝下에서는 日人 官學者들이 주동이 되어 殖民地學의 일환으로 民俗學이 개발되었고 그들 나름의 括目할 만한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支配者의 一員으로 식민지상태를 영구화하고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口碑傳承이 수집 연구된 것은 1930年代의 孫晉泰·宋錫夏·金在喆 등의 활약이었다. 그들은 殖民 탄압 밑에서도 살아있는 민족의 정신을 口碑傳承 속에서 발견하여 민족의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이었다. 이점에서 그들의 學的인 노력을 民族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1960年代에 와서 그것은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소위 近代化에 대한 反省과 아울러 殖民文化的 性格의 탈피가 오늘의 절실한 요구였다. 商業主義에 편승한 현대의 大衆文化는 近代化라는 美名下에 傳統文化를 말살하는 대신 封建的 舊態에 西歐의 惡弊가 混雜되기에 이르렀다. 오늘의 퇴폐·향락에 빠진 商業主義文化를 改革하기 위해서 口碑文學으로부터 新風을 빌어와야 한다. 오늘날 口碑文學의 연구는 이같은 역사적 임무를 저야하는 것이다.

이번에 公刊된 「口碑文學概說」은 역사적 임무의 일부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登場되었다고 하겠다.

2.

종래 口碑傳承을 연구하는 몇가지 방법이 유행했다. 孫晋泰·宋錫夏氏는 民俗學으로, 그리고 최근 文化人類學이 도입되었다. 國文學研究 편에서는 이와는 달리 國文學을 이해하기 위한 補助科學으로 관심을 두었으며 記錄文學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들은 口碑傳承 자체를 문학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그것이 갖는 文學性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더구나 그것에 대한 장르론적인 인식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本書에서는 “첫째, 口碑文學이 文學이라는 점”, “둘째, 口碑文學은 文學으로서 研究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학이 크게 記錄文學(written literature)과 口碑文學(oral literature)으로 兩分되며, 兩者는 同等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文藝學의 대상으로 연구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本書는 이 이론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口碑文學을 國文學의 一分野로 보고 文學으로 研究하려는 것이 著者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학문적인 입장이었으며 그들의 입장이 本書를 통해서 대변되는 셈이다. 여기서 민속학(Folklore)이나 文化人類學(cultural anthropology)과는 學問的 立場이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실은 民俗學과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 民俗學이 주로 民間信仰이나 民間의 行事 특히 祭儀나 藝能 面을 다루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는 그 구분이 명확해 보이나 本書의 口碑文學研究는 歐美의 民俗學的 方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문적인 대상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이다. 가령 本書에서 특히 참신하게 쓰여진 類型論은 民俗學의 새로운 이론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西歐에서 民俗學이 포괄하는 영역과 民俗學的 方法論이 우리나라에서 口碑文學으로 불리우게 되는데는 우리의 學問的인 傳統과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다. 東洋에서는 口碑傳承을 기록하여 문학작품으로 중시해온 오랜 전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國語에 의한 기록문학이 日淺하고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國文學研究에서 口碑文學 쪽을 중시해왔고, 本書는 이러한 傳統

을 계승했다고 하겠다.

3.

本書는 <第一章 序說>에 이어 說話·民謠·巫歌·판소리·民俗劇·俗談·수수께끼로 구분하여 第2章에서 第8章에 걸쳐 배분했고, 第9章에서 「口碑文學에서 記錄文學으로 移行」을 第10章에서 「口碑文學의 現地調査」방법을, 마지막으로 약간의 資料를 附錄했다. 그 口碑文學의 각 분야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서술방식이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資料, 分類, 形式, 類型構造, 社會的 技能, 反影된 意識등을 논하고 있다.

說話는 神話·傳說·民譚으로 三分하여 취급했는데 그중 民譚의 서술에서 참신한 면모가 돋보인다. 民譚의 類型構造의 分析에서 叙事文學研究에 새로운 視角을 보여준 점, 「民譚에 나타난 民衆意識」에 주목한 점이 그것이다. 「民譚에 나타난 民衆意識」은 아직 그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分析이 미흡해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問題提起로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서 “國文學에서 傳說是 悲壯의 源泉이라 할 수 있으며, 笑話는 滑稽의 高 향이고 계속적인 공급처다” 그리고 民譚은 “흥미에 그치지 않고 眞實性을 지니고 있다”는 자못 주목할 만한 假說들을 세우고 있다.

民謠는 自序에서 밝힌 바 “새로운 角度에서 제 나름대로의 創意的인 體系化를 試圖해” 보았다고 하겠다. 특히 律格論에서 그 “律格의 基本單位는 音步”로 보고, 그 音節에서 2音節까지가 모여 한 音步를 이룬다 고했다. 그리고 音步보다 더큰 律格의 單位는 行이며, 한 行을 이룰 수 있는 音步數는 1音步에서 6音步까지로 보았다. 이 이론을 $x-1 < x < n+1$ 이라 公式化하고 있다 (여기서 n 은 行이나 音步를 이루는 音步數와 音節數 x 는 平均數). 이러한 律格은 民謠의 技能과 內容에 의해 달라지고 있는 사실도 밝히었다. 위의 民謠의 律格論이 詩歌文學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民謠의 장르 區分」에서는 抒情民謠·叙事民謠·教述民謠·戲曲民謠로 四分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다. 「民謠에 나타난 民衆意識」에서는 士大夫의 自然觀과 다르게 自然을 生産의 現場으로 보는 認識과 封建官僚와 日帝殖民支配에 抗拒하는 民衆意識 등이 輕快하게 論破되었다.

巫歌, 판소리, 俗談 등은 기존의 연구를 체계화한 수준이며,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本書가 그 첫 시도가 되는 듯하다.

“수수께끼는 隱喩를 써서 對象을 定義하는 言語表現法”으로 규정하고 그 修辭的인 表現面을 증시했다.

第9章의 「口碑文學에서 記錄文學으로 移行」은 本書의 結論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口碑文學과 記錄文學과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다. 韓國文學史上에 口碑文學, 國語로 된 記錄文學, 漢文學이 존재하는데 이중 國語로 된 記錄文學은 口碑文學과 漢文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한다. 貴族文學인 漢文學에 대하여 庶民文學인 口碑文學은 文學史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17세기 이후 사회변동에 수반하여 口碑文學의 記錄化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近代文學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現代文學에 있어서도 口碑文學의 역할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口碑文學을 계승함으로써 民族文學을 새로운 次元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날 다시 試圖되고 있다”고 하면서 閣筆했다.

本書에 수록된 口碑文學의 資料는 이 방면에 대한 교양이 부족한 讀者의 見識을 열어줄 수 있고 풍부한 參考文獻目錄은 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4.

우리는 本書에서 俗談과 수수께끼를 포괄한 점에 한가닥 회의를 금할 수 없다. 俗談과 수수께끼가 口碑傳承이긴 하되 그것도 文學일까? 說話·民謠·판소리·民俗劇 등의 口碑文學과 同年에 論하기 어려움을 느낀다. 本書에서 이들을 포함시켜 하나의 문학양식으로 다룰 때는 적어도 이러한 회의를 풀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口碑文學의 各分野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과 綜合的인 認識이 만족스러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려운 듯하다. 이것은 현재 口碑文學研究가 資料蒐集이 미비하고, 수집된 資料에 대한 解釋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학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本書의 이러한 限界性은 바로 本書의 著者들에 의해서 克服될 것으로 믿는다.

本書가 여러가지로 不遇한 여건 속에서 허덕이는 현재 학계의 실정에 미루어 높은 수준의 저서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 基本的인 자세에 우리는 전적으로 共感하는 것이다.

듣건데 本書가 大學에서 口碑文學을 강의하기 위한 教科書로 편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教科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음을 논했거니와 作家 知識人の 생생한 教養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鄭 漢 模

(문리대 도서관장)